

제1절 새마을운동

1. 새마을운동 개관¹⁵

새마을운동은 마을 주민들이 근면·자조·협동하여 나도 잘살고 내 이웃도 잘살며 내 고장과 나아가서는 내 나라를 잘살게 만들자는 운동이다. 이는 우리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잘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근대화 운동이며 한국민족의 일대 약진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고취해 오랫동안 시달려 온 가난을 물리치고 살기 좋은 새 농촌건설과 풍요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1971년부터 시작된 정신혁명 운동으로서 도·농간, 계층 간의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증대 운동의 성격을 띠며, 또 사회의 부조리와 낭비를 없애고 「근면·자조·협동」의 3대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상부상조하는 범국민운동이다.

이 운동은 초창기인 1970년대 초반에는 새마을정신을 확산시키면서 농어촌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환경개선-「근면·자조·협동」의 정신개발-농촌소득증대의 ‘잘살기 운동’인 소득증대라는 전략에 따라 마을 단위의 새 마을 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했다.

당시의 주요 사업은 마을안길 넓히기, 지붕개량, 담장 고치기, 공동빨래터·우물·간이급수 시설의 설치, 소하천 정비, 교량가설 등으로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그 후 도시와 공장 새마을사업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새마을정신 개발을 위해 교육사업도 시행하였다.

1988년 제6공화국이 들어서고 국회의 국정감사와 5공 비리 청문회를 통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새마을비리’가 폭로되자 새마을운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개편하고 순수한 민간주도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재추진해 나갔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2000년 2월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0년대 새마을운동은 그 목표도 ‘잘살기 운동’에서 ‘함께 잘살기 운동’으로 재정립하고 더욱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지역개발사업의 하나로 환경개선사업, 마을간 도로·교량 개

15. 새마을운동 편은 울진군, 2001, 『울진군지』; 새마을운동중앙회(<https://www.saemaul.or.kr>) 등을 참고로 기술하였다.

설, 농로개설, 도로보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줄여나가기 등을 추진했고, 이외에도 일 더하기, 균검절약, 독서 운동, 환경 보존 운동 등을 전개했다.

1998년 12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창했다. 주요 내용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운동을 지향 이념으로 하며, 경제난 극복과 공동체 사회 구현을 목표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실천 원리로 하여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격과 방향을 나라 살리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건설, 지속 가능한 환경 실현, 민족통일 준비, 공생·공영의 세계화 운동에 맞춘다는 것이다. 이를 생활 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하여 생활·의식 개혁 운동, 민간 사회안전망 운동, 환경 보전 운동, 지역활성화운동, 통일 및 국제화 운동 등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은 생명·평화·공경 운동을 통한 새로운 문명사회의 성공적 건설을 목표로 생명 살림, 평화 나눔, 공경 나눔, 지구촌을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자연 재생에너지 활용, 절약과 효율성 향상, 생명의 밤상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 협동조합 설립, 도농, 지역교류 활동, 대북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또 밥과 말 교육,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캠프, 직장 한 가족 일터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한 공경문화 확산과 16개국 174개 마을의 재도곡 시범사업 조성사업,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시도, 시군구 지구촌 새마을사업 등을 통한 지구촌 사업을 펼치고 있다.

2. 새마을운동의 연혁¹⁶

1) 새마을운동의 여건 조성

1960년대 공업 위주의 산업화정책의 성과는 국가의 경쟁력 배양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1970년대 초에 농촌개발정책을 가능케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에 개최된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농민관계기관·지도요원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 자조노력의 진작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통하여 제창(提唱)되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가꾸기의 시험사업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정부에서는 1970년 10월부터 1971년 6월에 이르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국 33,267개의 행정리동(里洞)에 시멘트 335대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리동개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숙원사업을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조·자립하는 정신과 협동적인 노력을 자극하고 촉구하였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어서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주민들의 자조적인 노력으로 정부 지원 41억 원의 3배에 달하는 122억 원 상당 [주민 자력 부담 81억 원]의 실적을 올림과 동시에 정부로서는 앞으로의 사업 전개를 위한 시

16. 새마을운동 연혁편은 울진군, 2001, 『울진군지』; 새마을운동중앙회(<https://www.saemaul.or.kr>) 등을 참고로 기술하였다.

책의 자료와 경험을 얻게 되었다.

2) 새마을운동의 종합 체계화

1971년도의 새마을 가꾸기 시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1972년도는 새마을운동의 전개 방향과 추진 방법을 종합 체계화함으로써 그 개념을 정립하고 지붕개량과 농로 확장 등 환경개선에만 역점을 두었던 <새마을 가꾸기>로부터 ① 환경개선 ② 정신개발 ③ 소득증대의 3개 부문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1972년에 전국 34,665개 마을 중에서 우수마을로 선택된 16,600개 마을에 각기 시멘트 500대와 철근 1톤씩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6,108개 마을이 자진 참여함으로써 36억 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으로 총 316억 원 상당의 성과를 거두었다.

1973년에는 전국 34,665개의 전 마을이 참여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사업의 내용도 기초환경개선사업보다는 협동적인 생산소득사업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잘살기 운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국의 마을을 그 발전 수준에 따라 기초마을[18,415], 자조마을[13,943], 자립마을[2,307]로 구분하여 그 실정에 알맞은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¹⁷

그 후 1974~1976년을 자조발전단계, 1977~1981년까지를 자립완성단계로 구분하여 우수마을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실시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1년 내무부와 각 지방의 도·군·면에 새마을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와 기구를 설치하였고, 1980년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 제정되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설립하였고, 1982년에는 각 시·도 지부를 조직하였으며, 1984년 3월 21일에는 시·군·구 지회를 설치하였다.

3) 새마을운동의 대전환

새마을운동은 2018년 6월 11일 제219차 중앙회 이사회를 열고 생명·평화·공경 운동 추진을 의결하면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2019년 2월 19일에 2019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마을운동 대전환을 선포하고 2019년 10월 29일, 2019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통해 생명살림운동 실천다짐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생명살림운동을 중심으로 생명·평화나눔과 공경문화를 두 축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을 위해 실천하고 있다.

17. 기초마을 : 환경개선+정신개발→자조의욕의 점화(시멘트 500대와 철근 1톤씩 지원)

자조마을 : 환경개선+노임사업→농외소득의 증대

자립마을 : 소득사업+문화복지사업→복지 및 소득향상(정부재정의 충접적 지원마을)

3. 울진군새마을회 조직 및 활동

울진군새마을회는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새마을지도자울진군협의회와 울진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진군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들 3개 분과는 10개 읍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말 현재 울진군새마을회 회원은 총 1,835명이며, 새마을지도자는 435명이다. 새마을부녀회 회원은 206명이며, 새마을문고 회원은 23명이다.

울진군새마을회의 주요 활동은 크게 정기적인 자체 사업과 경북도새마을회 주관 사업, 부정기적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기적인 사업은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프로젝트, 새봄맞이 대청소 및 환경 정화 활동, 폐자원 수집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이웃사랑 실천 운동, 대입 수능 수험생 간식 지원,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 군, 읍면 단위 행사 지원, 농촌 일손 돋기 참여 등이다.

또 경북도새마을회 주관 사업은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대회 및 여인상 시상식, 도민 선진화 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 대회, 경상북도 도민 문화 한마당, 경상북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이다.

부정기적으로 지역에서 전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2005, 2009년 울진엑스포 자원봉사 참여, 2011년 경북도민체전 자원봉사, 2016년 전국 스포츠 제전 급식 지원 및 자원봉사 등 각종 행사 자원봉사활동과 2011년 기성 산불 이재민 돋기, 2019년 태풍 미탁 피해 자원봉사, 2020년 5월 울진읍 신림리 산불 진화 봉사,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 방역 활동 등을 전개했다.

국민의 정서 순화와 새마을정신의 계발을 촉진하고 독서를 통한 지식 보급으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질향상 기여를 위해 새마을문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새마을문고 울진군지부의 주요 사업은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문고지도자 및 회원 확충, 교육, 도서의 수집 및 배부, 교육·문화·예술동아리 조직 및 재능기부 활동, 이동도서관의 설치 운영 등이다.

2019년 6~7월에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108에 구산새마을작은도서관을 조성했으며 2019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경북예선 참가하여 운영 부문 최우수상과 중앙회문고 운영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또 2019 독서생활화 신간 도서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내 작은도서관 및 초등학교, 군부대에 신간 도서 438권을 지원하였다.